

이성의 언덕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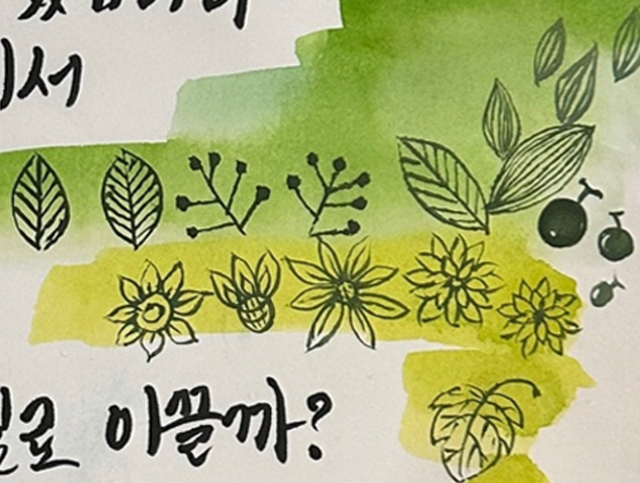
중산. 함효종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월은 나를 굽혀 움켜쥐지만
아직은 굳게 뻗은 내가 존재함을

나는 진리를 밖에서 찾았습니다
하늘을 보며, 빛바랜 책에서
대문 깊은 사색에서
경험이 전부가 아니고
이성만으로 부족하다면
과연 무엇이 나를 옳은 길로 이끌까?

높은 가슴은 압니다
학식보다는 겸손
모름보다는 탐구

칸트여 당신 덕분에
이 늙은이도 다시 생각해봅니다
비판속에 파는 조용한 꽃을 만나기 위하여



GDU 101 고전 문화예술 공모전 작품 소개

고전 도서명

순수 이성 비판 <임마누엘 칸트>

작품 설명

순수이성비판을 읽고 삶의 성찰을 다시하였다.

칸트의 책을 읽고 경험과 이성과 옳을 길을 가기 위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다시 다짐하게 되었다.